

마하반야바라밀 노래 부르는 깨달음의 나무가 되자

前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 스님, 두 번째 주제법문 '네가 심고 있는 나무를 아느냐'

모든 중심 속의 중심, 핵심 중의 핵
 굳게 닫힌 채 달콤함을 즐기는 편도
 하늘의 모든 별들까지도 그대의 과육(果肉),
 예배를 드리노라. 보세, 그대!
 아무것도 그대에게 매달린 것이 없음을 느끼
 네
 그대 과피(果皮)는 무한 속에 묻혀있고
 거기서 과즙은 진하게 짜여지네
 밖에서는 광채까지 반짝이며 그를 비추인다.
 저 위쪽은 온통 그대 태양들이
 가득 가득 빛을 뿜으며 돌고 있으니
 그대 속에서는 이미
 태양들을 뛰어넘는 일출 시작된 모양이네.

4월 26일, 두 번째 법회는 청화 스님의 릴케의 시 '광휘 속의 부처님' 낭독으로 시작됐다. 스님은 이날 '네가 심고 있는 나무를 아느냐'를 주제로 법문했다.

청화 스님은 수행자이자 시인으로서 조용하지만 스며드는 듯한 목소리로 좌중에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란 화두를 던졌다. 나무에 대비한 심오한 법문에 들떠있던 좌중은 벌써 사색에 잠겼다.

'내가 지금 심고 있는 나무는 무엇인가'. 스님은 법문 중 나무는 하나의 상징으로 인과의 진리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떤 나무를 심었고, 후회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 어떤 나무를 심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주길 바란다"는 스님의 말은 자성에 대한 꾸밈음으로 들렸다.

청화 스님은 초기불교 경전에 나오는 세 가지 나무를 들어 불자들이 나아가 할 방향을 제시했다.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비롯한 대중은 감탄했지만 장석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다. 제자들이 이유를 묻자, 장석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나무는 쓸모가 없는 나무다. 배를 만들게 되면 가라앉고 관을 짜면 금방 썩어버리고 물건을 만들게 되면 금방 깨지며, 문을 짜면 진이 나오며, 기둥으로 세우면 벌레가 생긴다. 쓸모가 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배어갈 생각을 하지 않아 클 수 있었던 것이다."

대중은 그 말에 모두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장석의 꿈에 나무의 정령이 나타났습니다. 나무의 정령은 '어찌 나를 유실수와 비교하느냐'며 장석을 질책했고, 장석은 크게 깨달았습니다.

다른 하나의 나무는 (잡아함경)에 나옵니다. 불심이 독실한 한 노인은 염불을 많이 하면 극락세계에 간다는 말을 듣고 매일 염불을 했습니다. 어느날 노인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염불수행을 다 마치지 못하고 있을때 불의의 사고로 죽게되면 사후 어디로 가는가'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굵은 나무에 비유해 설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동쪽으로 굵은 나무를 벤다면 어디로 넘어지겠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쪽으로 굵은 나무는 쓰러져도 동쪽으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수행 중 사고를 당해도 극락세계에

있는 나무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나무를 모릅니다. 나무를 모르는데 스스로의 권위로 나무를 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심고 있는 나무가 재앙의 나무라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신령의 나무는 많이 심어야 합니다.

플라톤은 국가가 국민들의 성격에 의해 만들어 지므로 국민들이 현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사회가 바람직한 사회가 되려면 이익에 따라 신념을 저버리는 사람보다 신령한 나무와 같이 오랜 기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그런 나무와 같은 사람이

여러분이 어떤 나무를 심어야 할까요. 우선 재앙의 나무는 누구도 심어서는 안됩니다. 재앙을 바라지 않는다면 재앙의 나무를 심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이 심으면 개인이 재앙에 덮이고 조직의 수장이 덮는다면 그 조직이 재앙에 덮힙니다.

예를 들어, 4대강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심고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매일 정진으로 굵은 나무가 되어야

동쪽으로 굵은 나무 쓰러져도 동쪽이듯 수행하다 죽은 자는 죽어서도 극락간다

이 많아야 합니다. 번치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원(願)은 다릅니다. 스스로 세운 원을 포기하고 중도에 변모시킨다면 원을 원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큰 바위에 깔려도 깨지지 않는 그런 원을 세워야 합니다.

큰 나무가 굵은 나무가 된 것은 짧은 기간이 걸린 것이 아닙니다. 작은 나무일때부터 한 방향으로 부단히 자란 결과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금년에 못하면 내년이라도, 금생에 못하면 내생이라도 하겠다는 원을 가지고 굵은 나무가 돼야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나무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있다

이런 모든 나무를 현실에서 직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은 인과의 진리를 깨달으시고 실천적인 삶을 사신 분입니다. 우리는 인과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인과를 믿지 않고 이를 실천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어떤 나무를 심는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우리 곁에 부처님이 오신다면 '지금 네가 심고 있는 나무를 아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심어야 할 나무를 심지 않고 심지 않아야 할 나무를 심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심기를 바라는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동근 깨달음 산 가운데 한그루 나무가 있으니 꽃은 하늘과 땅이 나뉘기 전에 피었고, 꽃빛은 푸르지도 희지도 검지도 않은데, 봄바람이 부는데 있지도 않고 하늘에 있지도 않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심기 원하는 나무는 이런 나무인 것입니다. 깨달음의 산에 우뚝선 나무, 하늘과 땅이 생기기 이전에 꽃을 피운 나무, 그 빛은 푸르지도 희지도 검지도 않은 나무가 있는 곳은 봄바람이 부는 것도 하늘도 아닌 것입니다.

가시나무 새처럼 불법을 노래하라

우리들은 그 전에 심어야 할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는 가시나무입니다. 서양 전설에 가시나무새라는 새가 있습니다. 우리도 가시나무를 심어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하고 날카로운 가시가 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던져서 가시나무새가 되어서 뽀얀 가슴을 가슴에 깊이 찔러 가슴에 찔린 아픔으로서 마하반야바라밀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무를 심기 바라면서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리·노덕환 기자

청화 스님은...

1962년 출가. 1977년 <불교신문>, 1978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시인으로 등단.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 이사, 청평사 주지, 조계종 중앙종회 수석부회장,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역임. 지금은 정릉 청암사에 주석하고 있으며 참여연대 공동대표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시집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산문집 <꽃을 꽃이라 부른다>, <항기를 따라가면 꽃을 만나고> 등이 있다.

초기 경전의 세가지 나무

<상윳따니까야>에는 큰나무경이 있습니다. 씨앗은 아주 작지만 커진 이 나무를 일러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지혜를 덮치는 나무라고 하셨습니다. 이 나무에 덮침을 당할 때 이성을 잃고 인간의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을 분출하게 됩니다. 우리는 탐욕가가 되고 분노를 터뜨리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변모됩니다. 이 나무는 재앙의 나무입니다.

또 다른 나무는 중국 고사에 나오는 신령의 나무입니다.

중국 제나라 고공에는 밀동이 100아름이 넘는 큰 상수리 나무가 있었습니다. 나무의 키는 산을 넘볼 정도로 했습니다. 수십 개의 가지는 가지 하나를 갖고 배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했습니다.

나무는 나무 이상으로 인식돼 사람들이 이에 대해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날 '장석'이라는 유명한 목수가 제자들과 목재를 구하기 위해 그 나무 앞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연등 불사 안내



삼보에 귀의하옵고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탄신일을 봉축하며 또한 본 종에서 추진하는 부처님 탄생지 룸비니에서 [룸비니세계불교문화 올림픽]의 성공적인 법회를 기원하기 위하여 저희 총본산인 각황사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연등 불사를 봉행 하고자 합니다. 룸비니세계불교문화올림픽이 성공적인 개최가 이루어지도록 총본산 각황사에서 연등을 밝히고자 하오니 중도 여러분께서는 모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 종단이 국내불교단체 중에 으뜸가는 전통종단으로 자리를 할 수 있도록 중도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석가탄신일을 맞이하여 귀 사찰의 연등불사가 원만히 이루어지길 바라옵고 부처님의 가피가 세세생생 늘 함께 하시기를 두 손 모아 축원 드립니다.

- 연등일시 : 불기 2555년 5월 7일 저녁 8시 (음력 4월 7일)
- 연등장소 :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리 645번지 각황사경내
- 문의 : 053)325-0400, 053)325-5288 / FAX 053)325-4848
- 동참금 : 각 사찰당 2만원 (룸비니세계불교문화올림픽성공기원 연등)
- 계좌 : 농협 351-0325-8576-93 (예금주 : 각황사)
 ※ 송금하실 때 지역,사찰명을 표기해 주십시오. 예) 부산 성불사

大韓佛敎 傳統曹溪宗 總本山 覺皇寺
 會主 : 釋能仁 大宗師
 住持 : 龍山 舍掌

룸비니부처님탄생지에서 세계불교문화올림픽개최 성공기원

대한불교 전통 조계종

명예종정 일파각암

원로최고의장 관산 원당

종정대행 석능인

원로의장	석보각	종회의장	석묘각	승가대학원장	석운암	사정원장	석진각
중앙선원장	석법장	법계고시위원장	석지우	울원장	석현덕	호계원장	석용산
교육원장	석덕암	포교원장	석효천	감찰원장	석해광	사서실장	현각
염불원장	석심공	총림대학장	석인묵	무술연수원장	석도천		
총무부장	혜천	재무부장	길상	사회부장	수현	규정부장	도천
국제부장	혜성	비구니부장	보승	포교부장	용진	법사단장	현광
서울총무원장	상호	경기총무원장	무진	인천총무원장	용담	충북총무원장	청인
강원총무원장	지산	경북총무원장	법운	대구총무원장	자은	경남총무원장	보명
울산총무원장	호암	부산총무원장	범일	거사림회장	남훈	중앙신도회회장	대비주

사찰등록환영

■ 총본산 :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리 645번지 각황사 총무원 053)325-0400
 원장실 053)325-5288, 종정실 070-7763-9922, 팩스 053)325-4848